

떠오르는 중국대륙에 퍼져가는 한글의 숨결

중국에서의 한글교육 실태와 문제점

언어교육은 문화전파의 중요한 수단이다. 지금 우리 한글은 세계 여러나라로 뿔어나가고 있으며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값진 일이라 하겠다. 우리 신문은 대우에서 주최한 '세계경영특파원'모집에 선발되어 지난 7월15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했고 현지에서 취재한 '한글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이번 5백50주년 한글날을 맞이해 게재한다.

(편집자)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개방의 물결을 타고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후 변화성장은 대단히 빨라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이제 시간문제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또한 13억의 거대한 인구는 중국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는 칭호를 가지게 한다. 92년 우리나라는 변화속에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정식수교를 맺었고 이후 양국간의 무역량은 급속히 증가해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우선무역국가순위 3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금의 중국에선 한창 '한국 붐'이 일고 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경향은 우선 중국의 신문광고면에서 나타난다. 한국 관광여행 광고가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한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과회사 제품이 상당히 인기있는 것도 중국에서의 한국 붐을 실감케 해준다. 중국과의 수교이후 우리나라에서 중국 붐이 인 것처럼 지금 중국인들은 한국을 동경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있다. 경제와 무역의 도시인 상해에선 이미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중공업 부분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고 현지의 우수한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해에선 이러한 기류를 타고 한글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상해복단대학교가 작년 9월 조선어학과를 신설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중국내 한국 붐의 일환으로 한국 알기의 움직임에 호응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북경에는 우리문화를 소개하고 교육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한국문화신문처가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외무부 소속인 이 기관은 주로 중국의 언론, 출판, 방송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으며 문화신문처 내에 4천여권의 한국관련책자와 일간지 등을 비치해 한국에 관한 자료를 찾는 이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소 문화신문처에서 한국관련 자료를 자주 관람하는 조선족 이향



▲복잡한 상해의 거리풍경

▼북경의 한국문화신문처에 비치된 한국 홍보자료



▲상해복단대학교 정문

중국내 한국 붐 따라 조선어과 인기누려 모국차원에서 한글교육에 대한 지원 필요

미(주부·34)씨는 "이곳에는 한국의 일간지, 최근 소설을 비롯해 한국지도도 마련되어 있고 비디오 자료실도 마련되어 있어 평소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주일에 한번씩 한국영화 상영하고 한국어 교육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간간히 문화강연회를 열기도 한다.

한국어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보단 한국에 대한 관심부여차원에서 시작된 한국어 강좌는 3개반 1백50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다. 현재

호응에 대해 "초기에는 조선족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80%정도가 중국인들이고 수강인원이 학기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연변지역에서의 한글교육은 조선족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는 구분된다. 연변지역에선 한중수교 이전엔 연변지역 강제이주 이후 세대가 계속될수록 심각할 정도로 우리말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중수교 이후 우리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점차 조선어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변지역의 조선족 자치주인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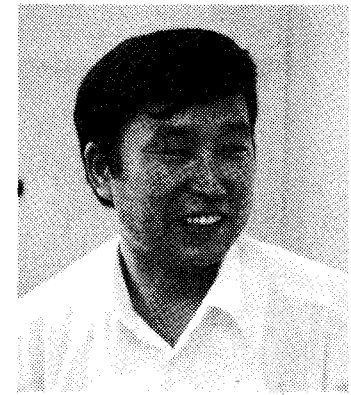
길시에 위치하고 있는 연변대학교는 조선족이 세운 민족대학으로 일제해방이후 교육열을 타고 1949년 3월에 설립됐다. 중국내 한글교육에 있어서 가장 규모가 크고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연변대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받는 수모를 극복하면서 발전해 왔다. 60년대 초 중국에 민족정통이라는 민족감정 조성의 시기가 시작되고 문화혁명 이 일어나기 전까지 국문학 연구는 거의 마비상태였고 많은 연변대 교수들이 해임당했다. 이후 70년대 말부터 학과가 재건되기 시작해 77년부터 정규적으로 학생을 모집했다

한다. 이러한 정치풍파를 이겨내고 지금은 조선어문학에 있어선 중국에서 가장 실력있는 교수진을 확보하게 됐다. 지금 연변대는 조선어문학부 내 14개 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한 반에 40여명씩 7백 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현재 연변대에 재학중인 이해연(조선어문학부 박사과정·28)씨는 "입학당시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는데 조선어를 전공한다는 것에 주위의 반대가 심했다. 졸업해도 전공을 살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었는데 우리 민족의 문화

인터뷰

'한중수교 이후 인기학과 군림'



상해 복단대학교
조선어학과 교수
강 보 유

—조선어학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외국어학부에 하나의 과로 조선어학과가 포함되어 있고 주로 중국인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정원은 16명이고 조선족 교수 3명이 강의하고 있다.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어디로 진출하려 하는가.

는데 남북한 언어중 어느 언어를 중점으로 강의하는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기 이전에는 대부분 중국내 대학에선 평양말씨를 표준어로 삼아 이를 교육했다. 그러나 한중수교 이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부터 각 대학별로 실정에 맞는 것을 선택해 교육하고 있다. 그 예로 북한과의 인접국경을 수비하게 될 군인들을 양성하는 낙양 군사학과의 경우 북한어를 중점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무역업자를 많이 배출하는 천진외대의 경우엔 남한어를 중점으로 교육하고 있다.

우리학교같은 경우는 한국어와 조선어를 확연히 구분하지 않고 취사선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한국정부지원 충분히 못 받아 대부분 학생 한국기업 취직 원해

—복단대는 북경대, 천진외대를 비롯해 국가일류대학에 속하는 만큼 중국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어학부 중에 조선어학과를 일지망으로 지원하여 입학한 학생들이다. 한중 수교이후 상해에 한국기업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인기학과로 부상중인 우리학교 조선어학과를 졸업하게 될 학생들은 대부분이 한국기업에 취직하려 하고 있으며 한국대사관과 영사관 등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다.

—조선어과 합은 북한어를 뜻하

—한국측에서의 지원현황은 어떠하며 조선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한국 정부차원에서 지원으로 문교부를 통해 1년에 한명씩 파견교수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으로 민영기업들로부터 약간의 도서자료와 사무용 컴퓨터 한 대를 기증받은 것이다. 하지만 도서자료는 아직도 모자란 실정이고 국가지원금의 원 별다른 경비지원이 없어 변변한 복사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언어를 연구해보자는 마음으로 입학했고 지금은 이렇게 박사과정까지 갔고 있게 됐다. 지금은 졸업생들이 한국기업으로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인기학과가 되어가고 있다"라며 현재의 조선어과의 위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연변대는 민족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우리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5백여종의 한국영화와 비디오시설을 갖춘 영상문화연구소를 설립중에 있다. 조선어 교육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에 대해 김호웅 교수(조선어학과)는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보호정책아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만한 연구활동을 하고 시설을 확충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중 관계는 양국의 활발한 교류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에 우리의 문화

를 알리는 한글교육에 충분한 지원을 함으로 양국의 문화교류에 힘써야 하겠다. (김동욱 기자)

취재수첩

연변대 취재를 하면서 연변대 기숙사에 묵었다. 조선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찾다가 맞은 편 기숙사 건물에 살고있는 조선어학부 신문학과 2학년 여학생을 만나게 됐다. 이 학생의 할아버지는 함경도가 고향이라 한다. 아직도 귀에 낯선 이북어투로 우리에게 포박포박 물었다.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당황했다. 교포 3세이고 지금은 고향땅에 살지도 않는 이 학생은 조국이 통일될 날을 바라라고 있다고 한다. 순간 지금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그리곤 아무말 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다.

사랑과 믿음의 동부그룹



끝없는 도전으로 세계의 벽을 넘는다

사랑과 믿음의 기업 동부가 세계로 도약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되어 고객과 사회에 항상 믿음을 주는 기업을 일러가자"는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27년간을 끊임없이 더 좋은 제품생산을 위해 기술개발에 전념해온 동부-

건설·제강·화학 등의 기간사업에서 금융·보험·증권의 종합금융과 신소재·정보통신 등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동부는 고객과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불굴의 투혼으로

세계의 벽을 넘고 있습니다.

